

TV 29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Table with 5 columns: 채널A, KBS1, KBS2, MBC, KBC/SBS. Rows 6-12 and 1-12 showing program schedules.

작년 국민 1인당 3.8회 영화관 찾았다

2000년대 들어 최대치...전체 관람객수 1억9400만명

지난해 국민 1인당 3.8회 영화관을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영화진흥위원회가 발표한 '2012 한국 영화산업 결산'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영화관 관객수가 1억9489만2244명으로, 전년도 1억5972만 명에 비해 22% 증가했다. 전국 주민등록인구(5094만명)를 기준으로 따지면 국민 1인당 연평균 극장 영화 관람 횟수가 3.83회로, 2000년대 들어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한국영화 전체 개봉작 174편 중 영진위가 상업영화 70편을 기준으로 산정한 투자수익률은 13.0%로 잠정 집계됐다. 2005년 이후 7년 만에 한국영화 투자수익률이 플러스로 전환했다. 영화 수익성의 잣대가 되는 손익분기점(BEP)을 넘긴 영화가 총 22편으로 상업영화 70편 중 31.4%에 달했다. 이 중 투자 수익률 100%를 넘긴 작품이 12편으로 17.1%를 차지했다. 영화 시장 활황에 따라 상영관수 역시

2011년 1974개에서 지난해 2081개로 늘었다. 한국영화는 해외 시장에서도 선전했다. 한국영화 해외 수출 총액은 전년 대비 8.4% 증가한 3782만4804달러(한화 약 416억원)로 집계됐다. 완성작의 해외 수출 총액은 전년 대비 27.5% 상승한 2017만4950달러(한화 약 221억원)로, 2008년 이후 4년 만에 2000만 달러 선을 회복했다. 영화 부가관객 매출에 해당하는 온라인 시장도 IPTV, VOD(다운로드 및 스트리밍 등), 모바일 서비스를 중심으로 큰 성장세를 보였다. 지난해 영화 디지털·온라인 시장 규모는 2158억원으로, 전년 대비 26.3% 성장했다. /연합뉴스

KBS '내 딸 서영이' 45.6%... '넝쿨당' 인기 넘어서

KBS 2TV 주말극 '내 딸 서영이'가 지난 27일 시청률 45%를 넘어서며 50%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28일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이 드라마는 전날 방송된 40회에서 전국 45.6%, 수도권 46.1%를 기록하며 자체 최고 시청률을 경신했다. 이는 지난 13일 기록한 최고치인 42.3%보다 3.3포인트 오른 수치다. 이런 기록을 전작인 '넝쿨째 굴러온 당신'의 인기도 뛰어넘는 것이기도 하다. 국민적 인기를 누린 '넝쿨째 굴러온 당신'은 지난해 9월9일 마지막 58부에서 자체 최고 시청률인 45.3%로 막을 내렸다. '내 딸 서영이'의 이날 시청률은 '넝쿨째 굴러온 당신'의 최고 기록보다 0.3%포인트 높은 것인데 18회나 앞서 기록을 갈아치운 것이다. 또 TNmS 조사결과에서는 '내 딸 서영이'의 이날 전국 시청률은 47.2%로 집계됐다. 수도권은 47.5%였으며 분당 최고 시청률은 52.5%까지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TNmS는 "오후 8시32분부터 9시6분까지 30분 넘게 50%가 넘는 시청률을 계속 유지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월 29일 (음 12월 18일 乙未). Includes zodiac signs and horoscope predictions for various signs.

EBS program schedule table with columns for time slots and program titles.

EBS 플러스1 and 플러스2 program schedule tables.

Language learning section with three columns: Korean/English, Chinese, and Japanese. Includes phrases like 'The same as usual' and '黄金号码'.